경신대기근과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태의 비교를 통한 정부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고찰

목차

서론

1. 경신대기근과 조선 정부의 대처

2. 우크라이나 대기근과 스탈린 정부의 대처

3. 두 사태의 참사를 통해 이해하는 정부 대처의 중요성

결론

서론

최근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화제가 되었다.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다. 나아가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피해는 전 세계에 충격을 남겼다.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인들의 거센 저항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줄로만 알았던 전쟁이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들을 저버리지 않은 지도자가 있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다. 우크라이나가 언제 무너질 것 같냐는 외신의 질문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상이군인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며, 사기를 북돋우며 진정한 리더로써의 모습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책임감있는 대처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나아가 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의 중요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세계의 역사를 망라할 때, 한 국가가 대대적인 위기를 맞았던 적은 수도 없이 많았다. 역사 속에서 단 한번도 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는 없었으며, 이를 어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은 물론 존폐 여부가 달라지기까지 했다. 인류가 맞이했던 국가적인 대위기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낳았다. 전쟁은 무고한 백성들의 피해를 낳았으며, 전염병 앞에서는 백성들은 물론 귀족과 왕족들도 안심할 수 없었다. 특히 흑사병이 대유행했던 14세기 유럽에서는 유럽인들의 3분의 1이 사망하기도 했다. 비단 농민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으며, 수많은 귀족들도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전쟁과 전염병 이외에도 역사 속에서 국가를 위협한 위기는 수도 없이 많았다. 특히 대기근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재앙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한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신 대기근'을 손꼽을 수 있다. 경신 대기근은 기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양반이나 왕족까지 아사 (餓死) 할 정도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우크라이나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존재했다. 바로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다. 현재까지도 이를 추모하는 비석이 남아있을 정도로, 해당 사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거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아직까지도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악의 사태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경신 대기근과, 우크라이나를 혼돈으로 몰아넣을 만큼 끔찍했던 우크라이나의 대기근 사태를 면밀히 연구한다. 나아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올바른 대책 및 예방 방법이 무엇인지를 비교사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계화를 이룬 현대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대인들이 함양해야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역사 학습의 중요성과 연관지어 이해하고자 한다.

본론

1. 경신 대기근과 조선 정부의 대처

‘경신 대기근’ 은 조선 현종 11년인 1670년에서 현종 12년인 1671년까지 약 2년 여에 걸쳐 발생했던 대기근 사태를 일컫는다.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기근 사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경신 대기근의 경우, 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여타 기근 사태에 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경신 대기근은 부정에 대한 일말의 여지조차 없이 ‘한반도 최악의 기근’ 이라고 불릴 정도의 재해였다.

재앙은 갑작스러운 흉작과 병충해로 인한 곡물 생산량의 감소에서 촉발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여역’ 이라는 전염병마저 유행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도성에서 진휼청을 설치하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유랑하는 걸인들이 어지러이 모인 것이 원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빙하를 통해 시대별 이산화탄소의 분포를 측정해 보았을 때, 17세기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현저히 적게 나타나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가량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는 ‘데칸 대기근’ 이, 일본에서는 ‘칸에이 대기근’ 과 ‘엔포 대기근’ 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7세기의 기근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사태가 처음 발생했던 경술년, 연초부터 크고 작은 지진이 한반도 전역에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뒤이어 우박과 홍수, 가뭄, 태풍, 서리와 같은 자연 재해가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불어닥쳤다. 이러한 여파로 조선 팔도 전체에 대흉년이 도래했고, 이는 ‘경신 대기근’이라는 막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경신 대기근이 조선 최악의 재앙으로 치닫는 데에는 전염병의 확산이 미친 영향 또한 컸다. ‘여역 (癘疫)’ 이라는 전염병이 병에 걸린 사람들 중 완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며, 일가족이 사망하기도 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현종실록’ 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문 밖으로 실어내는 수레가 날마다 잇따랐다.’ 고 표현하고 있다.[1)]

조선을 송두리째 사지로 몰아넣은 경신 대기근은 2년 동안 조선 팔도에 100만명 이상의 아사자와 병사자라는 피해자를 탄생시켰다. 경신 대기근이 조선 최악의 재앙으로 손꼽히는 까닭은, 해당 사태가 단순히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재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동안 재상 급의 인사들 10여명은 물론, 왕족까지도 식량이 없어 굶어 죽었을 정도였다. 자연히 농사를 지어 먹고 살던 백성들이 겪은 피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역 (구제역) 까지 퍼지게 되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은 소를 먹던 백성들이 병에 걸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2)]

---

1)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973). http://sillok.history.go.kr/id/kra_11203018_003
2) 조낙영. "기후와 기근, 역사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김덕진, 2008,[大饑饉-조선을 뒤엎다], 푸른역

‘현종실록’ 에 따르면 당해의 겨울이 몹시 추워 백성들이 시체의 옷을 빼앗아 입어야만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이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가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 것은 물론,[3]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잡아먹기도 하는 믿기 힘든 일까지 벌어졌다.[4]

약 2년간 계속되는 대기근 사태로 인해, 국가 행정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도 살아있던 노인들은 ‘차라리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가 나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심각한 대기근이었다.

극심한 굶주림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가족을 버리거나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기근이라는 재앙의 불길에 휩싸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조선 조정 또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특정한 지역에서만 실시되던 대동법을 전국에 거쳐 실시하자는 내용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승하자, 조선 조정은 여론의 편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기근 사태가 종결된 후에는 이전까지 대동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경상도까지도 해당 법안을 적용시켰다. 한편, 대기근을 거치면서 수많은 유민들이 발생하자, 조정은 급히 이들의 거주지를 북방과 만주로 옮겼다. 초반에는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유민들의 북방 이주는 훗날 청나라와의 국경 분쟁[5]을 낳았으며,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 계기가 된다.[6]

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도 있었다. 조정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양반가에서 거두어 기르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다만 양자로 삼거나 노비로 삼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오직 아이들이 길에 버려지는 것으로 인해 걸인의 수가 증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의 도살을 금하는 정책도 내렸다. 본디 조선 시대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도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기근이 너무 심각하여 몰래 소를 잡아먹는 백성들이 생겼다. 농경 사회였던 조선 사회에서 소를 도살하는 것은 이듬해의 농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를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백성들의 반발을 크게 샀으며, 심지어는 조선 조정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출했다. 당장 내년 농사를 대비하기도 전에 농경 인구가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연유였다.

사." 역사와 담론 53 (2009): 607-619.

3)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973). http://sillok.history.go.kr/id/kra_11203018_004

4)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973). http://sillok.history.go.kr/id/kra_11203021_002

5) 김문기. "17 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경계 85 (2012): 323-367.

6) 권정은. "'회심곡'에 반영된 조선 후기 대기근의 영향과 시왕 도상의 훈민 기능." 새국어교육 124 (2020): 391-421.

2. 우크라이나 대기근과 스탈린 정부의 대처

‘우크라이나 대기근’ 은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소비에트 연방국가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7] 에서 발생한 대기근이다. 흔히 ‘홀로도모르 (Голодомор)’ 라고도 불리우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스탈린의 사회주의적 집단화 정책을 통한 통제의 극대화의 실패한 산물이다.

당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볼셰비키의 초대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의 주도 하에 시행된 ‘신경제정책 (NEP)’ 으로 식량 생산이 다소 느슨해진 상태였다. 레닌의 뒤를 이어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오시프 스탈린은 느슨해진 식량 생산과, 이에 따른 도시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사회주의적 집단화 정책’을 시행했다. 사회주의적 집단화 정책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본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토지와 농기계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전부 공동의 소유로 만들어서, 대규모 집단 농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스탈린은 당초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식량 생산을 빌미로 삼아, 곡물을 수탈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당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는 자영농을 간과하고 있었다. 추운 기후 탓에 넓은 영토에 비해 불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비옥하고 광활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유럽의 빵 바구니’ 라 불리우던 세계적인 곡창 지대였다.[8]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자영농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자영농은 자신이 일구어 낸 농산물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내비쳤고,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농업은 생산력을 잃은 지 오래였으며, 스탈린 본인 또한 계획했던 우크라이나의 수탈량을 3분의 1까지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곡물의 생산량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부농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곡물 생산력은 급락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시초가 되었다. 스탈린은 급락한 곡물 생산력을 대체하기 위해 목축업마저 집단화하기에 이르렀다.[9] 당시 우크라이나는 기계화 농업 대신 여전히 가축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기근이 계속되자 사료가 부족해지고 밭을 갈던 가축들이 아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며 다시 농업에 차질이 생겼다. 농업 관련 지식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전 지식조차 전무했던 당시 공산당원들이 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실을 알 리 없었

---

7) 이선우. "유라시아의 지정학, 민족 균열, 그리고 재민주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사례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31.3 (2015): 85-114.
8) 김상원.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크라이나 경제환경 변화." 동유럽발칸연구 24 (2010): 185-210.
9) 실패한 스탈린식 집단농장…1932~1933 대기근 . (2021)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9)

고, 그들이 농업을 맡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당원들의 지시 하에, 기근을 이기지 못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축들을 남김 없이 도살했다. 식량이 부족하면 가축을 잡아먹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농업의 결정적인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10)]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농업 집단화 정책에 국가에서 할당한 곡물의 징발량을 채워서 납품해야만 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식량은 전부 국가의 소유로 돌아갔고, 가축의 감소로 농업 생산량이 날이 갈수록 급락하며, 식량 부족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당시의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추리소설 「차일드 44」에서는 '사람들이 개미나 곤충의 알이라도 먹기 위해 흙을 깨무는 일이 허다했으며, 나무껍질을 씹다가 잇몸이 튀어나왔다'고 묘사하는 대목이 존재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줄어들어버렸고,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늙어버렸다'라는 구절에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한 미국인 사진 작가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식민지에서 유색인종 아이들이 갈비뼈가 드러난 모습으로 풀을 뜯어먹는 것을 여러 번 보았으나, 백인 아이들이 같은 모습으로 풀을 뜯어먹는 것을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목격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내 33개 지역에서는 굶주림을 이기다 못해 식인을 저지른 사례까지도 보고되었다. 최소 100만명에서 많게는 150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우크라이나 대기근 당시 사망자가 약 300만명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다는 주장을 정설로 보고 있다. 해당 수치로 계산할 때,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하루에 분당 10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독소 전쟁 당시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자, 우크라이나인들이 기근 사태를 해결해 줄 영웅이 왔다고 환대했다는 웃지 못할 내용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는 기근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비와 기념비가 아직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과거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에게 끔찍한 악몽을 안겨주었던 최악의 사태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든 깊은 상처 중 하나인 것이다.

3. 두 사태의 참사 및 정부 대처의 중요성

10) 허창배, and 최진우. "지역의 선택: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내정치와 지역무역협정 정책." 동유럽발칸연구 42.4 (2018).

경신 대기근과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태는 모두 기아가 인류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참혹한 기록을 통해, 국가적인 대재앙이 주는 위협과 참상의 정도는 물론 대기근이 인간을 나락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위중한 사태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국민과 백성의 상당수가 고통받는 재해가 행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다. 당장 경신 대기근만 보더라도, 재앙과도 같은 기근이 정치적인 혼란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 사건 모두 위급한 때일수록 정부의 정책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경우, 사태가 발발한 이유는 전부 스탈린 정부의 집단화 정책에 있었으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 연유도 전부 정부의 그릇된 정책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태가 사람들에게 더욱 공포를 주는 까닭은 단순히 대기근 사태가 마무리 된 이후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 스탈린에 뒤이어 집권한 흐루쇼프 정부는, 대기근 사태와 같은 여러 피해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우를 극대화했다. 그 덕에 소련 정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감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땅과 인구까지 지원해주는 탓에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족 갈등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인의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러시아어 사용 비중이 매우 높고, 러시아 정교 신자가 주된 구성원이었다. 이와는 달리 서부는 유럽과의 지속된 상호작용으로 서방에 매우 친화적이었으며, 독자적인 민족주의 전통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로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사태가 발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11)]

민족 갈등과 더불어, 당초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스탈린 정부의 급진적인 농업 집단화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안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쉬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 정부는 이를 경시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원인이 '부르주아 학문의 수용'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그의 헛된 주장은, 기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식물 종자를 연구하던 과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와 그의 세력을 전부 수용소에 감금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집단화 정책이 자연히 소멸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모두 농업의 생산성이 극대화시킬 수

11) 이선우. "유라시아의 지정학, 민족 균열, 그리고 재민주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사례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31.3 (2015): 85-114.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소련 정부가 내세운 정책의 무지몽매함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경신 대기근 또한 비슷한 경우를 겪었다.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유민들이 발생했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들을 북방으로 이주시켰다. 당장은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해 훗날 청나라와 간도를 두고 분쟁을 벌이게 되고, 간도 협약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중국과 동북공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옳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

경신 대기근과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각각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죽음보다 끔찍한 굶주림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은 물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경신 대기근의 경우, 왕족이나 양반조차 안심할 수 없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19와 같은 재앙이 두 나라가 겪었던 대기근과 겹쳐 보였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과거를 통해서 고난을 현명하게 이겨낼 방법을 찾을 때라고 생각했다. 이미 2년이 넘게 지속된 상황이니만큼, 각 나라의 정부는 세계를 전염병으로부터 구제할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국민은 정부의 합리적인 선택을 삶에 적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훗날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 조선과 우크라이나의 기근은,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극복되었다. 2022년의 우리는 지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더욱 성숙한 사회에 살고 있다. 더불어 이미 과거에 겪었던 재앙이라는 귀중하고도 값진 경험이 있다. 정부는 과거의 사태로 말미암아 현재의 위기를 어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의 선택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예기치 못했던 순간은 항상 닥쳐오기 마련이므로 특정한 부분에서는 완벽하지 못한 대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비책은 필요할 것이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하나의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깊이있게 파악하여 위기를 대처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크나큰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해답은 인류가 그간 겪어왔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참고 문헌

권정은. "'회심곡'에 반영된 조선 후기 대기근의 영향과 시왕 도상의 훈민 기능." 새국어교육 124 (2020): 391-421.

김문기. "17 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경계 85 (2012): 323-367.

김상원.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크라이나 경제환경 변화." 동유럽발칸연구 24 (2010): 185-210.

이선우. "유라시아의 지정학, 민족 균열, 그리고 재민주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사례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31.3 (2015): 85-114.

조낙영. "기후와 기근, 역사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김덕진, 2008,[大饑饉-조선을 뒤엎다], 푸른역사." 역사와 담론 53 (2009): 607-619.

허창배, and 최진우. "지역의 선택: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내정치와 지역무역협정 정책." 동유럽발칸연구 42.4 (2018).

기타 참고 자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973).
(http://sillok.history.go.kr/id/kra_11203018_003)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973).
(http://sillok.history.go.kr/id/kra_11203018_004)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973).
(http://sillok.history.go.kr/id/kra_11203021_002)

실패한 스탈린식 집단농장…1932~1933 대기근 . (2021)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9)